

서 평 지

서평 제목	노동이여, 부디 우리를 잊지마오.	참가번호	2024-30
도 서 명	변신: 단편전집	확 인	기재하지 마세요
프란츠 카프카의 『변신』은 외판원으로 가장의 의무를 행하다 고된 노동으로 인해 어느 날 갑충(바퀴벌레류)으로 변한 주인공 그레고르 잠자의 이야기를 담은 소설이다. 출장을 가기 위해 일어난 그는 몸이 이상하다는 걸 알아차리고 자신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노력하는 걸로 작품의 시작을 연다. 이 과정에서 지나치게 시간을 많이 소모하며, 출장을 가지 못하게 될 자신의 운명을 떠올리면서 사장에게 연락을 넣어야 한다는 것, 사지가 멀쩡하지만, 경제생활을 하지 않는 가족들의 생계 등을 걱정한다. 여기서 자신의 안위는 생략된다. 그레고르의 일 자리는 사라지고, 가족들의 근심도 높아졌으나, 변신하기 전에는 나눠본 적 없던 경제 상황을 가족들이 의논하는 등 그를 제외한 가족들이 자립해 나간다. 경제생활을 하지 않았던 가족들은 급하게 노동 현장으로 들어가고, 서로 응원을 통해 지지하며 가족생활을 이어 나간다. 오로지 그만 없는 세계에서 살아 나간다. 시간이 지나며, 그는 자살 행위의 일종으로 식사를 거부하고 몸의 상처를 치료하지 않는 등 방안에 가둬진 채 쓸쓸히 죽는다. 이를 본 가족들은 오랜만의 휴식을 누리 기 위해 결근계를 작성하며 산책하러 나간다. 가족들에게는 해피엔딩, 그에게는 슬픈 결말이다. 작품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다. ‘출장을 나가는 외판원, 노동하지 못하는 그레고르 잠자, 노동자로서의 가치를 잃자 이상 행동을 보이는 양상이라니 오늘날의 노동자다.’ 그레고르 잠자는 자신의 업무 강도에 따라 경제적 이득을 중간에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외판원이다.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인해 큰 일을 하겠다는 목표와 의지, 열정이 있어도 현실을 택할 정도로 사리 판별이 확실한 인물이기도 하다. 그래서 다른 외판원 동료들이 8시에 근무를 시작할 때, 혼자서 새벽 5 시 기차를 타는 등의 높은 업무 강도를 약 5년간 유지한다. 이 과정에서 가족은 그에게 감사함을 표시하지만, 혼자만이 외부에서 활동하고 늦은 시간 귀가하기 때문에 소통은 적어지고, 결속력 또한 줄어든다. 그럼, 우리 사회에서의 그레고르 잠자를 생각해 보자. 그레고르 잠자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어떤 직종으로 잡을 수 있을까? 너무 많지만, 간단하게 생각해 보자면 ‘쿠팡맨’, ‘플랫폼 소속 배달 기사’, ‘택배/우편물 기사’가 나올 것 같다. 해당 직종들의 특징은 바로 ‘내가 하는 만큼 돈을 벌 수 있다’고 홍보되는 직종이라는 점이다. 이런 홍보와 극악의 업무 환경으로 인해 많은 노동자가 입 문했다가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보고 업계를 떠나거나, 과로사로 사망하는 것도 특징이다. 희정 작가의 『일할 자격』이라는 작품이 있다. 그 중 「1. 생산적으로 살아가?: 성실하지 않은 청년들의 분투기」에서는 이런 문단이 있다. ‘정확히는 일하다가 다치고 병들거나 부당하게 해고되어 싸우는 사람들을 주로 만났다. 이들은 억울해했다. 열심히 일한 자신에게 돌아온 것이 이런 대우라니. 자신을 지탱해 오던 무언가에 상처를 입었다. (중략) “열심히 일했을 뿐인데.” 하지만 사람들은 이들의 ‘열심’을 인정하지 않았다.’ 마치 그레고르의 처지 같다. 그는 장시간 강도 높은 업무를 행하며 직업병으로 기관 질환을 앓고, 어느 순간 갑작스레 ‘변신’이라는 병까지 얻게 된 노동자이다. 그런 그를 찾아온 지배인은 변신한 그를 보고 도망치고, 일자리를 다른 이에게 넘긴다. 가족도 그를 처음에는 의무적으로 돌보			

서평 제목	노동이여, 부디 우리를 잊지마오.	참가번호	2024-30
다가 경제적 여건으로 인해 노동하며 얻은 피로로 돌봄에 소홀해진다. 물론, 돌봄 외에도 본인이 입는 제복, 몸 상태, 자신의 취향에도 소홀해진다. 현대 사회를 사는 우리의 삶 같다. 작중에서 그레고르는 인간일 때, 자신의 취미인 만들기를 최대한 즐기고자 노력했다. 여동생은 바이올린에 공을 들였다. 아버지는 안락의자, 어머니는 뜨개질이나 바느질과 같은 공예에 관심을 가졌다. 그러나 ‘변신’ 후에는 그에게 살기 좋은 여건을 조성한다는 근거로 그의 정체성을 지워나간다. 노동자들이 업무상 피해를 당한 후, 자신의 정체성 중 하나를 잃었다고 말하는 점이 연상된다. 가족들의 모습에서는 언제든지 노동하러 가기 위해 제복을 입고 불편하게 자는 아버지의 모습, 여유를 만끽하는 삶을 살다 판매원이 된 여동생은 여유가 없어져 여가 대신 일종의 ‘스펙’을 쌓는 삶을 사는 모습을 통해 오래전부터 이미 자본주의를 통한 노동자의 삶 압박이 존재했음을 알 수 있었다. 스펙을 쌓고, 업무에 집중하는 모습이 누군가에게는 긍정적 요소로 보일 수 있다. 작품에서도 5년간 쉬느라 몸이 나빠진 아버지의 모습이 노동을 재개한 후로 분노를 기반으로 한 건강 회복이 나타나는 걸 보면, 노동의 긍정적 측면이 존재한다. 여동생과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가족의 경제 상황을 들으면서 생활력을 키우는 점도 이 긍정적 측면 중 하나다. 그런데, 서평을 작성하고 있는 나 역시 이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 아르바이트로 돈을 벌어서 힘들지만, 퇴근 후에는 취업을 위해 공부하고 외부 활동을 위한 보고서와 기획서를 작성하고 체력을 기르기 위해 잠을 포기하고 운동을 1~2시간 한다. 24시간이 부족하다. ‘나’를 만들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 ‘내’가 좋아하는 취미, 활동을 알아내기 위해서 잠이나 생계를 포기해야 한다. 생계를 포기하기에는 너무 과하기 때문에 결국 잠을 포기한다. 끝나지 않는 노동 과로 사회다. 작품은 결말까지 노동이 빠지지 않는다. 그레고르의 죽음 이후,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기 위해 가족들은 다 같이 결근계를 작성한다. 결근계를 작성하다 그들의 시간을 잠시 방해하는 파출부에게는 “저녁에는 해고해야겠어.”라고 말하며, 그들은 밖으로 나간다. 노동을 통한 생활력과 노동이 아닌 가족과의 시간을 통해 그들은 더욱 단단해진다. 노동으로 채워진 그레고르는 죽었지만, 침이 있었던 가족들만이 밖과 안을 넘나들 수 있다. 노동이라는 소재의 긍정적 요소와 부정적 요소가 함께 결말에서 나타나다니, 말그대로 엄청난 작품이다. 저자는 아무래도 노동으로 인해 사회적 가치 소멸로 죽어가는 노동자의 결말을 줄이고자 가족의 노동을 넣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현대 사회에서 잠자 가족과 같은 쉼과 노동을 병행할 수 있는 시기가 온다면 좋겠지만, 그날이 언제 올지는 아무도 모르지 않을까. 그 시기가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21세기 현대를 살아가는 노동자가 그레고르처럼 잊히지 않도록 나부터 주의 깊게 사회를 봐야 할 것 같다. 노동자들이 잊히는 사회가 지속된다니, 그건 너무 외롭지 않은가.			